

偽造電卓의 商標處理

—先進國선 探偵까지 動員—

日本의 某電氣會社가 美國市場에서 크게 재미를 보던 商品의 商標가 香港을 통하여 輸入된 他社商品에 盜用되는 紛爭에서 勝利한 内幕이야기 한토막.

그 電機會社는 日本의 弱電企業으로서 比較的 堅實한 經營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美國을 비롯한 中美地域에 小型電卓을 輸出하여 차츰 上昇勢에 있었다.

그러던 小型電卓이 갑자기 注文이 解約되는 가하면 不良品으로 クレ임請求가 늘게되어 總賣出이 30% 以上 減退하기에 이르렀다.

그 理由를 追跡한바 偽造商標가 붙은 偽造商品이 猶太人系 貿易商을 통하여 香港루트에서 大量 수입되었음이 確認되었고 前記 電機會社는 社長名義로 同貿易商에 警告狀을 發送하여 商標의 不正使用 即時中止를 要求하였다.

그러나 同警告는 無視된채 偽造品은 늘기만 하여 다시 作戰끝에 私設探偵으로 하여금 仔細한 内幕調査를 着手시켰다.

同調査結果인즉 이같은 위조소형전탁기는 同社의 위조상표를 붙인 偽造電機電卓으로서 B 貿易商社가 香港을 통하여 대량 수입한 다음 500個 單位로 단봉箱子에 包裝하여 트럭에 싣고 그 B商社 主人 스스로가 運搬, 美 南西部地方의 都賣商에 眞品の 3分の 1價格으로 現金販賣하고 있었다.

또한 텍사스地方의 멕시코系 密輸團에는 5, 000個 單位로 同偽造電卓을 賣却하고 있었으며 이들 密輸團은 引受即時 夜間에 輕飛行機에 積載하여 멕시코國境 넘어 山岳地帶에 潛伏하고 있는 멕시코 밀수꾼들에게 落下傘으로 投下한 다음 멕시코國內에 진품인양 판매하고 있음도 探

知하였다.

이같은 B 貿易商社는 이름뿐이지 場所를 轉轉하는 個人商이므로 住所가 一定치 않아 法廷鬪爭은 할수가 없는 處地였다. 다시 생각끝에 次善策으로서 策關에 대하여 商標侵害品の 輸入禁止申請을 하였다. 그러나 B 貿易商人은 同商標 앞에 「UNI」라는 接續詞를 붙여 세관을 通關시킨 다음에는 「UNI」이라는 文字를 떼고 다시 포장하여 市販하는 까닭에 이를 막는 唯一한 方法은 B 貿易商本人을 追跡하여 直接談判하는 길뿐이었다.

이리하여 B 商人을 追跡하기 시작한바 그는 이를 알아차리고 이리 저리 피하면서 위조품을 계속 팔고 있었다. 探偵의 힘으로 끝내는 B 商人과 만나서 解決하려는 瞬間 그는 또 逃亡하려 하였다. 이때 同行하였던 C 探偵이 재빠르게 턱살을 낚아채어 붙잡게 되었고 B 商人은 그 자리에서 모든 經緯의 實吐와 더불어 手中의 販賣代金 및 殘餘電卓을 내놓게 됨으로써 事件을 풀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參考로 할것은 B 商人이 붙잡혔을 때에 自己가 갖고있던 現金마저도 내놓았다는 事實이다. 사람에 따라 그 評價의 基準이 다르겠으나 이 사건의 시초에서 해결까지의 모든 手段은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다.

또한 工業所有權의 紛爭이란 先後進國을 가리지 않고 날로 교묘해지고 있음을 企業人은 留意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經濟는 産業의 發展으로, 産業은 革新技術을 바탕으로, 技術은 特許權利의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先進工業國의 實相이 立證하고 남음이 있다.